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2호 [투계 제2658호]

주체 110
(2021)년 8월
7일
토요일
음력 6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높이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8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4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린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으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진 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높이 들

고나갈 불멸의 기치를 마련 해주시었다. 로작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주의 원칙에서 해결하며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며 량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단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었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

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조국 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었고 유훈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가 분열된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은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억울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 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에

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파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타는 일념을 안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식화, 그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도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즐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은동지》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서도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어야만할것이다.
최광혁

사랑과 정,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많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이 말에는 아름다움과 화목, 희망이 깃들여있다.
하기에 누구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정에 대해 말한다. 수많은 소설이나 영화들 가운데 사랑과 정을 그리지 않은 작품이 없다.
사랑과 정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인간생활의 영원한 주제이다.
사랑과 정에 대한 성구, 속담, 명언, 격언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있는 공허한것으로 만들어버리고있다.
경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세계는 더욱 좁아졌으나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고있으며 더욱 고독해지고있다는 목소리가 바로 한때 자본주의를 요란스럽게 찬양하던 언론들에서 점점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인간은 무엇에 살며 인간

번 죽었다.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절규하며 경찰들에게 한을 터뜨렸다.
이렇듯 메마르고 차디찬 사회에 무슨 사랑이 있으며 정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것은 남조선사회에 돈밖에 모르는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
하나 우리가 사는 이 땅 공화국은 어떠한가.

식처럼 키워주는가 하면 너의사가 화상으로 얼굴이 이그러진 로동자처녀에게 아름다운을 되찾아주기 위해 8년간 무려 100여차례의 크고작은 수술을 한 감동깊은 이야기다 공화국에서만 들을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다.
연대인가 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썼다.

《나를 마치고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저 진귀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 땅에서의 미담들을 체험하여 하나씩들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한때 이것이 일인가. 저 깊은 숲속 혹은 들만에 회귀할 하나씩들씩 숨어있어야 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마치 도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양은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어나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서 피어난 꽃송이들은 저마다 갖가지 모양, 갖가지 빛깔을 띠고 저마다 그윽한

누구나 사랑으로 마똥하고 부드러우며 서로 돕고 이끌며 살아가고있다.
사랑과 정이 흐르는 사회야말로 인간사회의 향기가 풍기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이고 가장 약동하며 강한 사회이다.
사랑과 정으로 뭉친 힘보다 강한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사랑과 정, 사회와 집단에 대한 사랑과 정을 안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세계도처에서 반정부시위가 그칠새없이 일어나고 민족분쟁과 내전으로 인한 후파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살지만 여기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와 뜻과 정을 나누며 화목한 한가정으로 살고있다.
말마친 새로 나온 노래 《그 정을 따르네》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널리 불리우고있는것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인민의 마음을 반영한 노래이기때문인것이다.
사랑과 정으로 뭉친 나라 그 누구도 해칠수도 허물수도 없다.
이 세상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은 그 거대한 힘으로 어떤 시련과 난관도 물리치며 더 큰 행복과 번영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8월에 들어서서도 날씨는 여전히 무덥기만 하다.
그러나 외세와 아함하여 버려지는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열기는 더욱 뜨겁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계기로, 조국해방의 날인 8.15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본부, 《한국대학학생전보련합》 등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반전, 평화수호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년례적》으로 버리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달아오른 8월의 대지를 뒤흔든다.
왜 그토록 절절히 웨치는것인가.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형식이 어떨든간에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때문이다.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공화국의 종심에 대한 선제타격, 상륙작

전, 평양전격과 같은 도발적인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걸진과 같은 행동으로 옮겨지곤 하였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또 전쟁연습을 강행할 때마다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판에 박은 말이 뒤따르는데 그 언급이 《년례적》으로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수위는 해마다 날아오르고 있다.
바람따라 구름이 가고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그때문이다.
미친 전쟁연습바람이 어떤 구름을 몰아오고 종당에는 이 강토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참화로 들췌워졌는가는 너무도 명명백백하기때문이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전쟁연습이다.-
-전쟁연습과 평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전쟁연습중단으로 평화변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에서 시대와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수 있다.
남조선인민의 반전, 평화수호의 열기가 삼복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이유이다.
정 필

조선 특유의 재부 용 나라에 넘히는 사랑과 정

어느 한 철학자는 《사랑이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힘이고 무기》라고 하였고 또 어느 한 력사가 《인간사회가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것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 《사랑은 모든것을 이긴다》, 《사랑에는 귀천이 없다》, 《정이 있으면 꿈에도 보인다》, 《정들자 리별》 등 사랑과 정에 대한 많은 말들이 전해져온다.
옛사람들도 정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락도 있다 했거늘 인간생활을 돌아가는 기계와 대비하면 사랑과 정은 윤택유나 같다고 말할수 있다.
특히 우리 조선민족은 남달리 사랑과 정에 살고 사랑과 정에 살고있는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웃들간에 정을 주고받으며 화목하게 살아왔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는것을 미풍으로 여겨왔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간 집이 있으면 남너로스 모두 떨쳐나 버짙 한탄씩 들고 소박하게나마 사랑과 정을 표시하는것이 우리 선조들의 령의 습습이었다.

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땅과 재부를 자부하는 나라들도 있고 성장과 힘을 떠드는 민족들도 있다. 그러나 부유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눈이 부시게 화려해도 알날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에게 귀중한것은 물질적부이기 전에 사랑과 정이며 제일 그리운것도 그것이 다. 인간은 해탈을 찾듯, 생명의 요구와도 같이 사랑과 정을 갈망한다.
하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니지만 나라는 개인주의만이 만연하고있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돈과 리해사산으로 얽혀져있고 사교의 중심에 《나》, 즉 자기만이 있다.
한치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의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죽여 못가에 버리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죽이고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아내를 목졸러죽이며 학생이 스승을 구타하고 폭행하고있다.
수년전 무지한 탐욕과 남의 목숨을 함참게 여기는 풍조가 빚어낸 《세월》호참사가 하여 수백명의 아이들이 한낱한시에 바다에 수장된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사회는 메마른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정에 살고있는 사회, 사랑과 정으로 뭉친 사회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딜 가나 사랑과 정이 있고 행복이 있다.
집단의 기쁨과 행복속에서 자신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는 사회, 전체 인민이 뜨거운 사랑과 의리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고난과 시련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헤나가는 화목하고 단란한 하나의 대가정이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갈피속에 깊숙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라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가 나온것도 벌써 오래전인 지난 세기 60년대이다.
앞 못 보는 청년에게 광명을 안겨주려고 자기 안해의 눈에 수술칼을 댄 안과 의사도 공화국에만 있고 물에 빠진 자기 자식보다 남의 집 아이를 먼저 건져주고 수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친자

《나를 마치고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저 진귀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 땅에서의 미담들을 체험하여 하나씩들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한때 이것이 일인가. 저 깊은 숲속 혹은 들만에 회귀할 하나씩들씩 숨어있어야 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마치 도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양은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어나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서 피어난 꽃송이들은 저마다 갖가지 모양, 갖가지 빛깔을 띠고 저마다 그윽한

없다. 이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조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특유의 귀중한 재부이다.
공화국이 사랑으로 견고한 사회로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화국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지도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이기때문이다.
공화국을 가리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사회라고 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고있는 화목한 대가정에서 사람들은



강선의 《처녀어머니》(2016년)

당시 《(세월) 호참사 시형명제기》를 요구하여 시위에 나선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이 경찰이 쏘아대는 최루막에 피를 토하며 짐승처럼 끌려가는 남조선생이 분노와 저주로 끓었다. 그때 유가족들은 서로의 목을 노끈으로 묶고 《우리는 여러

친혈육의 정을 안고 전쟁로병을 들보이준다.

한 로동자의 광명을 찾아온 의료원근들

무던위보다 더 뜨거운것은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투쟁 선언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에 편승한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후쿠오카현민집회가 7월 17일 규슈조선중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책동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법원당국이 이번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주장을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법원당국의 부당한 판결은 일본정부의 차별책동에 적극 편승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까뻐했다.
그들은 민족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오늘 공화국은 곁사람이든 혹독한 난관과 시련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전진과 비약의 보폭을 더 크게 내걸고있다.

황철과 김철, 강선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노동자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한의 강재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이고있을 때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기상후조건에서도 기어 이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오려는 일념을 안고 과학농사철을 세계에 일으키고있다.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장과 원로, 자체의 국산화, 재자립화를 실현하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경공업공장 등 전국적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어렵고 힘들수록 자체의 힘과 자원, 기술에 의거하여 기어이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공화국인민이다.

자력갱생, 이는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단순히 고난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 길만이 국가의 살길이고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의 실생활체험을 통해 신념으로 굳게 각인해오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일군

자기 힘이 제일이다

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백철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돌이켜보면 국가적후방과 정규근로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발돋움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대상으로 무장고한 무장투쟁을 벌여야 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없었다면 조국해방이라는 역사적업무를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족자주의 힘으로 찾은 조국을 자주로 더욱 빛내여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는 신조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이 대국들의 지원이 없이는 허리는 고사하고 손가락마저 퍼지 못할것이었다.

이런 사대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면상을 자력갱생이라는 철화로 후려치며 세계의 하늘을 아우르는 천리마를 띄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던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믿을것은 우리 힘, 우리 인민밖에 없다. 제 힘으로 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하시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가시었다.

그 자력갱생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이 있어 적대세력들이 곧 무너질것이고 어리석게 예측했던 공화국에서 종합적력량을 과시하며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철갑사자가 바다로 나가며 도처에 회한한 선경들이 일떠서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질 수 있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의 기풍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 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의 심장마다 불굴의 정신력의 기둥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었다.

공화국인민들을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들이 키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그이께서 길고잡으신 현신의 자욱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주제104(2015)년 11월 새로 만든 지하철의 시운전을 보아주시러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하철의 성인이 정갈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지하철을 훌륭히 개발할 수 있는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자 국산화이라는 관점밑에 투쟁한 결과라고,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슴이 벅차온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언제인가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도서관(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하는 것이기에 의연한 무언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있기에 두려울것도 못해볼것도 없는 공화국인민이다.

공화국인민은 앞으로도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이 땅위에 반드시 인민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의 설비들을 들여다 조립이 나 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는 의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의 가슴마다 자력갱생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과학기술 발전에서도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분, 현지지도의 길에서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낸 설비들을 보실 때면 그이도 기뻐하시었다.

이 나날 공화국인민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를 앞서나가는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라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의연 적지 않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다지고다져온 불굴의 정신력, 기적과 위훈창조의 영원한 무언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있기에 두려울것도 못해볼것도 없는 공화국인민이다.

공화국인민은 앞으로도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이 땅위에 반드시 인민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정경순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하며

평양시의 문수지구에는 현대적인 병원이 준비하여 일떠서었다.

바로 여기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무수히 찍혀져있다.

특히 류경안과종합병원앞에 서면 몇해전 그날의 잊지 못할 화폭들이 어리여온다.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주시러 마옵시며 흠뻑 날리는 병원건설장에 나오시어 하나의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새라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영상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었다고 하시었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몇달후 완공된 병원을 또다시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꼭 하고싶었던 일, 사람에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위해 하고싶은 일... 인간에 대한 열사부부의 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꼭 하고싶었던 일, 그 많고많은 일들은 모두가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것이였으니 그의 애민현신의 로고속에 온 나라 도처에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었다.

인민의 꿈, 인민의 소원을 꽃피워주시는것을 불타는 념원으로 안고시고 그이께서는 쉬임없는 헌신의 날과 달을 수놓아가고계신다.

본사기자 리경월

인민이
의
마
미
속
의
빛
나
기
화
부
들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준비하여 일떠서었다.

이민위천의 리념을 높이 드시고

필생의 좌우명

주제81(1992)년 12월 어느 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군들이 참다운 인민의 행복이 되려면 혁명적근중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내가 회고록에 이민위천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인민대중의 복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왔습니다. 혁명하는 사

람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 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 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 번 패한다는것은 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주제92(2003)년 10월 28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뜻 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다. 나의 정치철학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정치에도 이민위천

을 사랑과 은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 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 이런 정치철학을 지니시였

깊이 새겨 주신 리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는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는것을 제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민위천에는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

를 사랑과 은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 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 이런 정치철학을 지니시였

깊이 새겨 주신 리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는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는것을 제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민위천에는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

본사기자

1995년 5월 25일은 총련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었다.

자본주의 일방면에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이 탄생을 때로부터 한 두해도 아닌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것은 진정한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물론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경사가 아닐수 없었다.

이 기사를 두고 누구나 더 기뻐하고 마음쓰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총련건설일을 몇달 앞둔 어느날이었다.

총련사업에 대하여 로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총련건설 40돐을 맞게 되는때 어떤 사업들을 예견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었다.

일군이 총련과 조국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에 대해 보고드리면서 이런 총련건설 40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주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었다.

일군들의 소망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그이께서는 건설 40돐을 맞게 되는 총련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고계셨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주체적으로 전환하고 총련을 창조하시어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더듬으시었다. 더우기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총련의 조직자이신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총련건설 40돐을 맞이하게 되는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애절한 심정으로 깊이 헤아리시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군님이시기에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갈 애국의 신념을 굳게 다지고있는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싶으신 마음은 각별히 뜨거우시었던 것이다.

총련건설일을 몇달 앞둔 어느날이었다. 총련사업에 대하여 로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총련건설 40돐을 맞게 되는때 어떤 사업들을 예견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었다. 일군이 총련과 조국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에 대해 보고드리면서 이런 총련건설 40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주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었다. 일군들의 소망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그이께서는 건설 40돐을 맞게 되는 총련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고계셨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주체적으로 전환하고 총련을 창조하시어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더듬으시었다. 더우기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총련의 조직자이신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총련건설 40돐을 맞이하게 되는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애절한 심정으로 깊이 헤아리시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군님이시기에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갈 애국의 신념을 굳게 다지고있는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싶으신 마음은 각별히 뜨거우시었던 것이다.

사회주의문명의 새 경치를 보여주는 양덕은천문화휴양지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들이 오늘날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린다.

조선로동당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받들어 지닌해에 이어 울퉁에 또다시 온천문명의 회한한 별천지를 찾은 로병들이 휴양의 전기간 귀빈으로 특별한 환대를 받았으시다.

김이금이 벅어온 외향을 따라결으며 아름다운 산천경계를 무감하는 멋이던가. 놀라란 온정봉의 푸르른 숲속에 꾸러진 야외온천장과 금당화육조, 숲출입육조, 약육육조 등 수십개의 개별육조들로서 이루어진 실내온천장에서 수도도 맑고 약은양도 하는 이물데없는 쾌감인중.

각종 운동기재와 문화오락기재들이 가득찬 종합복사소며 온천탕알의 별미를 느끼고보아볼때는 러 등 휴양지의 꽃밭에서 천천히 편의봉사를 받으며 온천문명, 온천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는 로병들의 얼굴마다에는 시종 웃음이 그칠 줄 모른다.

로병들을 위한 중앙예술단체 명배우들의 다채로운 공연무대도 펼쳐졌다. 예술인들과 어울

려 전시가요도 부르고 흥겨운 민요가락에 맞추어 춤도 추며 한껏 젊어진 모습을 저저마다 사진에 담는다. 휴양기간 봉사자들의 축복속에 생일상을 받는다. 아안은 로병들의 감격과 기쁨 또한 끝이 없다.

눈이 오는 바람이다. 듣는 사람마다 격정없는 새길수 없는 하나하나의 단편들, 이것이 어디서나 볼수 있는 예술사화 풍경이었던가.

세계를 둘러보면 로병들을 위

해 일련의 사회특혜조치를 취해주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세세년된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온 위대한 전승세대라는 고귀한 부름과 함께 로병들 모두가 민족의 장한 영웅으로, 승리전통의 창조자들로 떠받들려오고 국가와 사회의 커다란 관심과 혜택속에서, 오래오래 건강장수하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축복속에 여생을 값높이 긍정이 보내는 행복아들이 있었는가.

양덕평에 펼쳐진 웃음과 환희, 그것은 불변하는 로동당대에 복락을 누리며 로당익장하

도록 진함없는 열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 불보다 뜨거운 인덕의 세계가 안아온 고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지금도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자신께서는 전정로병들이 더 높기 전에 그들을 만발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인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마다 전정로병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

축하는것을 전통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2012년의 전승절경축행사로부터 전승 60돐 경축행사, 제4차 전국로병대회, 제5차 전국로병대회, 제6차 전국로병대회...

잊을수 없는 그 나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아 축하연설도 해주셨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리의 귀중한 보배》, 《숭고한 정신과 넉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출중한 혁명

승고한 동지적의리와 대배같은 배려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시던 연설에서도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도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이라고, 로병들이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고 정신이 맑고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며 모든분들께서 부디 건강장수하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절절히

한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지침이 담겨져있는 력사적서한인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를 받아안게 되었던 것이다.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서한에 접하여 감격과 기쁨에 울고웃으며 그이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영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제시

1970년대에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민족이질화》를 내 놓고 통일의 불가능성과 로원성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이른바 《민족이질화론》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면서 체제의 통일이 없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반통일적 꾀이다.

오랜 기간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 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민족의 이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두 제도의 차이가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외세의 조종 밑에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벌여놓은 꾀를 다 놓아 놓으며 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던 그때 평양에서는 고

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옳아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 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천명하시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건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지 않고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분렬된 두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자주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리상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이 방안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것은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 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

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공화국에서 1960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북남련방제안이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으로 가는 과도적 단계이었다면 1980년 10월에 발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창립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북남련방제가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선거를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 가진 북과 남의 두 지역과 두 정부를 련합한 하나의 통일 련방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면서 련방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도 제시하시었다.

정치강령, 경제강령, 군사강령, 문화강령 그리고 외교강령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현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련방국가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조선민족의 공동된 지향과 요구,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된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가장 애국에

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정부시정강령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련방국가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은 공화국 정부의 자주로선과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북과 남의 안락의 현실적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접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를 련이어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은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을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 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으로,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발》로, 《뜨거운 통일념원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면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으며 해외동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전명진

로목사가 올린 식전기도

198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에서는 본회의의 이름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일련의 대책적제안을 담은 편지를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속에는 당시 미국에 있던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교회련합회》 고문인 김성락 목사가 있었다.

그로 말하면 미국종교계에 일정하게 영향력도 있고 미국정책들속에서도 친분이 넓었으며 당시 미국당국의 눈봉을 받고 있던 유일한 조선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는 평양태생으로서 평양 숭실중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류학을 하였으며 고이와서는 보통강일대에서 교회목사를 하였다. 일제가 강요하는 《창세기명》과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로스앤젤레스련합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재미동포들의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다.

오래동안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반공의식에 물젖음대로 물젖어있었다.

김성락목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는 고국몽을 밝히보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공화국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편지에 접한 그는 그 고향땅도 한번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김성락목사가 평양방문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주체 70(198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를 접견해주시었다.

김성락목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당도했을 때 그이께서는 친히 현관문밖에까지 나오시어 기다리고계시었다.

차에서 내린 목사는 황황히 그이께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그를 따듯이 포옹해주시었다.

이어 김성락목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오랜 시간에 걸쳐 담화를 나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숭실중학교출신들 가운데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시며 우리 아버님께서도 평양숭실중학교출신들을 묶어세워가지고 애국활동을 시작하시었다고, 그때 평양숭실중학교출신들이 반일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조국을 통일하는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문제로 화제를 이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민족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대주의의 해독성과 지난 시기 공화국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시었다.

그러시고 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사람들과 재미교포들에게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조선은 통일된 다음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할것이라는것과 앞으로 조선이 통일되어도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을것이며 남조선에 있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을것이라는것도 잘 해설해주어야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친히 오찬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를 식탁으로 초청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먼저 선생이 식전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기도해 드림시오.》

사실 그는 그 자리에서만 평생을 지켜온 신자의 도리를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복되어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신 김일성주석님의 건강을 축원하며 기도를 드리었다.

후날 김성락목사는 미국에 돌아와 그리스로교신자들을 비롯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석님의 고마운 말씀을 접하는 순간 오래동안 나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모든 위구심, 회의심은 일시에 사라졌습니 다. 나는 충심으로 김일성주석님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황금숙

평화수호는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자못 중요한 문제로 나 서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와 직결되어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평화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해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평화없이 나라의 통일과 번영, 민족의 생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

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외세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구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가 외세에 의해 침략한 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으며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충상소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하였다라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열의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최근 조선전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과 조국해방의 날인 8.15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원대, 《한국대학생진보련합》 등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는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얼마전에는 일본주재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남조선미군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남조선미군합동군사연습 중단》, 《미일남조선군사동맹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벌렸다.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여기에 민족의 변영과 통일이 있다.

온 겨레는 단합된 힘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통일을 불러

민족어 연구와 더불어 빛나는 삶 (3)

주체 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던 뜻깊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 내각성원들을 발표하시면서 리극로선생을 무임소장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어제는 민족적광심과 애국적지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민족인사로 불러주시더니 오늘에는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해놓은 일도 없는 선생을 초대내각의 상으로까지 내세워주시니 어버이수령님!

진정 그이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리하면 그들모두를 사랑과 믿음의 한몸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그렇듯 위대한 민족의 어버이이시였기에 남조선에 두고는 그의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격정하시며 그들을 빨리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어 선생과 가족들이 평양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다.

리극로선생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 만일 인생 50고비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과 같이신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오늘과 같은 복락을 누릴수 있었겠는가.

김일성장군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어버이이시고 새 삶을 주신 인인이시며 무한한 영광을 안겨주신 유일무이한 스승이시다. 강산이 열백번 변한다한들

내 어찌 장군님의 그 은혜를 잊을수 있으랴. ...》 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상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도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선전하는데도 앞장서셨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란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보신 자리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탈출하신 연포리주막집에 대한 화제를 꺼낸 일이 있었다.

그날 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 강개로 오는 길에 연포리에서 김형직선생님이 탈출한 주막집을 직접 돌아보았는데 그 집이 그날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후대들이 선열들의 투쟁 역사를 모르면 후 레자들이 되는 법인데 일군들이 진통교양을 잘하는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였다.

그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혁명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나도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이 땅을 찾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선열들

의 령훈이 우리의 눈앞에 한꺼번에 날아와 싸워서 이기라고,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고 절규하는것 같아서 뜨거운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이 다 망했다고 떠들던 때에 연포리에 대한 리극로선생의 이야기 나이에 힘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을 반대하고 모국어를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신 그에게 조선어문연구사업도 맡겨주시었다.

조선어문연구사업은 그가 큰 포부를 안고 수십년간 심혈을 고스란히 바쳐온 전공 분야였으며 그에게 있어서 청운의 꿈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의 이렇듯 소중한 포부 와 소원을 헤아리시고 무임소 상으로 사업하는 한편 조선어문연구사업도 계속할수 있도록 그에게 조선어문연구회를 책임질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은 조선어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그 우수성을 옹호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나

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지금 우리 나라에 독특한 《조선어사전》이 없다고, 조선어문연구회에서는 앞으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었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선생은 편집집단과 함께 《조선어문법》편찬을 끝내고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을 다그쳤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어사전》원고들을 안전하게 운반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리극로선생을 몸가짜이 부르시어 원고인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그가 조선어문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전쟁의 포성이 울부짖던 준엄한 나날에 선생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후보원사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주시고 조선어문학연구소 소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었다.

민족어 연구사업에 심혈을 바쳐가는 리극로선생의 마음을 더없이 귀중히 여겨주신분



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을수 있었다.

80고령에 집필완성한 논문집 《조선어조연구》! 이는 땅국의 설음을 안고 몸부림치던 그대로부터 조선어연구에 뜻을 두고 한생을 민족어연구에 바친은 로학자의 삶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든번 째 생일을 맞은 해에 선생에게 공화국원사의 칭호와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그리고고도 안겨주신 사랑이 부족했지만 같이서 리극로선생의 유해를 애국력사 향에 안치하도록 해주시고 조국통일상수상자,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시었다. 민족어연구와 더불어 빛나는 삶! 리극로선생에게 있어서 수년동안 설음많은 운명이 끝나고 참된 삶의 길이 시작 된것은 바로 민족운명의 구세주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였다.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다시금 돌아보는 통일애국인 사로서의 선생의 값있는 삶도 없었을것이다. 백두산절세영원들의 손길 아래 빛내여온 리극로선생의 통일애국의 삶은 참다운 애국이 무엇인가를 후세에 가르쳐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쟁연습중단을 요구하는 남녘민심의 목소리

-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 활발히 전개 -

남조선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완화와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에 발족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어린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소식을 전하였다.

회견에서 그들은 《68년전 오늘 한반도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민들의 움직임에 각국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과 대화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다. 한국과 미국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7대 종교단체와 4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은 그간 1억명당성을 목표로 조선반도평화선언서명을 진행하여왔으며 서명운동에는 전세계적으로 8만여명이 참여하

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같은 날 남조선 언론 《CBS》도 《한국의YMCA전국연맹》이 조선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두바퀴로 그리는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을 진행한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조선의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18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모두 727km를 달렸다고 한다.

《두바퀴로 그리는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자전거종주운동》으로 조

선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70년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언론 《연합뉴스》는 7월 28일 전라북도의회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되어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한반도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회에서는 한 인사는 《우리 민족은 한국들의 패권다툼속에 민족상쟁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조선전쟁으로 600여만명의 인명피해와

수많은 리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68년이나 지속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7월 27일 논평을 발표하여 립박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서로를 적대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간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본사기자



신조어를 통해 본 사회의 미래상

최근년간 남조선의 청년들속에서는 수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유행되고있으며 쓸쓸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있다.

그러면 그 신조어들을 놓고 남조선의 젊은 세대들의 세태를 투시해보기로 하자.

현재 남조선에 있는 대학들에서 1년동안 등록금으로 모아들이는 돈은 12조 5 0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친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은 배우고있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실사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하여 대학을 《실업장성소》, 졸업생들은 《백수군단》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토록 어렵다는 취업문문을 뚫고 직장을 구했다고 해도 그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앞날은 불투명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학대하는 신조어들이 줄줄이 나오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잡지 《신동아》는 《월급이 들어오지

한주일만에 다 빠져나갔다. 역시 (나레기(나는 쓰레기))는 《노답(답이 없다)》이다. 어차피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인질...》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한편 친정부지로 뛰어들어 집값과 전세도 새로운 날말들을 속출하고있다.

집값이 뛰어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들을 칭하는 《벼락거지》,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묻지마계약》, 전세부담이 커져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집으로 들어가는 《강가루족》...

하기에 남조선청년들은 《명굴(명혼까지 끌어모은다)》해도 집을 살수 없는 《협생(협소스러운 인생)》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있다.

이미 이전 보수 《정권》시각에,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태어나고 그 《3포》가 내 집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로,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7포》로, 언제부터인가는 무엇이든 다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말

이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지고있다.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혐오스러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좌절감으로 몸부림치고있을 때 다른쪽에서는 극소수의 특권층자들이 향락에 빠져있어 사회적인 울분을 더해주고있다.

이것 또한 남조선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신조어 《흙수저》와 《금수저》를 날게 하였고.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어 한 잡지는 이렇게 밝혔다.

...《N포세대》는 이제 나는 무슨 수저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모의 자산이 나의 현재를 만들고 그 자산의 상속으로써만 미래를 그릴수 있다. 그것은 수저론, 신계금수저론이라고 한다. 《금, 은, 동수저》이며 누구는 《흙수저》이다. 그사이에 《수저수저》, 《블수강수저》 등의 또 다른 등급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금수저》우에 《다이아몬드수저》도 출현한

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는 《헬조선》, 그리고 이 지옥을 탈출해야만 한다는 《탈조선》이 유행한다. ... 여기서 보는 《헬조선》, 《탈조선》, 《수저계급론》은 지금도 남조선사회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신조어이다. 최근에는 약성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어려움과 사회적외로감으로 《코로너우울》이라는 낱말이 생겨나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살공화국》, 《죽인자살시대》라는 신조어의 뜻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이런 사회를 두고 《헬조선》, 《개한민국》, 《갑질세상》, 《지옥불반도》라는 단어가 아닌 단어들 생겨난 것은 응당할것이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와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신조어들이 불평등과 부정적 행태를 상징하는 남조선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을 엿볼수 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제대적은 제가 받는다

얼마전 도이힐란트에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는 수백만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빚을 졌다. 화해의 손을 내밀어준 많은이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쇼도이힐란트가 감행한 범죄에 대해 세기를 이어 반성하는 도이힐란트의 진심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실이다.

같은 시각 동방의 전범국 일본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울려나왔는가.

《유네스코는 사실에 반대되는 결의 철회해야》,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트집》,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상을 떨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작》...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조선인강제로동력사를 세계가 알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도 하지마(일명 군함도)란광 강제징용장사를 외국하여 전시헌법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자기 할바를 바로라도 요구하는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한 국무원론의 반발이다.

일본당국도 결정문이 채택되자 《지금까지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리행해왔다》, 《결정문기술에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두들겨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통을 악화하게 짜낸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범죄력을 세계에 가리우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하시마란팡이 그 련악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조선인 로동자들에게 대한 일제의 살인적인 로동강요와 극심한 민족차별로 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민과 일본인들속에서 지옥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에 하시마섬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당국으로부터 《조선인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짐까지 받아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해 약속을 리행한다면서 도피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오히려 《조선인정용자들은 거짓》이라는 허위 증언들을 위주로 전시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성실하게 리행해왔다》고 두들겨팼고있으니 낮가죽이 소발통같다는 말도 무색할 정도이다.

문제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으로 높아대는 일본의 파렴치성이 하시마란팡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아시아지역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침략의 역사를 《유럽인들로부터 아시아인들을 지키기 위한 해방전쟁》이라고 우기고 20년간의 조선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독재정의 반민법죄도 《매춘부》들의 소행이라는 껌변으로 합리화하는것이 바로 낮가죽 두꺼운 일본이다.

일본이 아니다.

력사의 죄악에 대한 사회와 배상은 고사하고 침략의 상징이자 활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전범기 《육일기》를 도쿄올림픽대회에 사용하겠다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까지 저들의 영토라고 우기는 《방위백서》와 지도를 마구 조작하여 우리 민족과 세인들의 치솟는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는것도 바로 일본이다.

에로부터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반세기나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이 유엔무대에서 전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경제동물》, 《정치난쟁이》로 비난을 받고있는것은 그들 스스로가 빚어낸 결과이다.

오만성과 파렴치성으로 력사외국과 과거죄악에 대한 참미, 평화에호인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제침책동은 계속 매달리는 일본에 차례질것이란 세계적인 규탄과 령대뿐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남조선에서 얼마전 이전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데 대해 정치분석가들은 추가속속들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공세와 지지탈락으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라고 평하고있다.

리유가 어떻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보려고 《국민의힘》에 기진기신 기어들어간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두고 지금 정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중이 무서워 정치행보를 운운하다가 지지탈락을 손쓸수 없게 된것》, 《《국민의힘》의 우산밑에 숨어든 겁먹은 배신자》, 《검찰총장직설의 수사가 본인의 정치를 위한것이였음을 립증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여당의 한 인물은 《윤석열이 《국민의힘》도 발아래 돌수 있는 위인것처럼 온갖 허위파장과 광고를 일

삼다가 알파한 내용과 밀착이 다 드러나니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고져 《국민의힘》의 그늘로 쫓겨듯 도망친것 아니냐》며 《한반만 살려달라는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라고 질타했다.

한 정계인물도 《11월입당을 홀리터 간보기에 열중

《다시 미안해하라》

런범안만 수십건을 쏟아냈다. 어린이집과 립근 소아과에서 무려 세차례나 아동학대의실로 행했으니 아동보호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을 폭력의 소굴로 빈빈이 되돌려보냈다. 처벌강화만으로 재발방지를 막을수 없다는 사실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지만 일주일만에 만들어진 졸속법안들은 사건의 본질을 피했다. 다행히 지난 2월 5일 아동학대문제를 파고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요구해온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됐고 진상조사자 이루어지는 듯 했다.

시간이 지나 4.7보궐선거가 도래하자 정치권은 급속히 령강했다. 국회가 망각한 사실에도 즉응의 행렬은 계속됐지만 고인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서인지 국민적공분이 일지도 않았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다.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원심법리에 넣어 고속으로 회진시키는 실험을 진행하는가 하면 오줌이나 말의 피를 사람의 신장에 주사하면 신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원숭이와 말의 피로 인간의 피를 교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험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인체내의 피를 어느 정도 뽑아낼수 있는가, 뿔뿔을 사용하여 피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기를 대량으로 폐에 불어넣었을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등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병을 경과하는 매 단계에 어떤 과정이 벌어지는가, 인체의 여러 부위들을 당하며 신체의 각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였고 그들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커다란

일단 당안에 들어왔으니 마음먹은대로 검증의 칼날을 휘둘러수 있기때문이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치권 전문가들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입당으로 보수야당안에서 《대통령》선거준비를 해 후보들의 거센 공세를 극복해야 하는 난문제를 떠안

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더 심해질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윤석열은 비문화적인 처신과 정치외교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 망신만 당하고있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방류금지, 《주120시간로동제》 실시 등을 비롯한 망언으로 《무지몽매한 윤석열》, 《사람잡는 후보》라고 략인이 찍힌 윤석열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를 해주라고 야유, 조소하고있었다.

한때 윤석열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피혁을 들추어내어 구축하였었다.

그러나 권력악용실현을 위해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감으로써 사람들로 부터 배신자, 바보지만 일삼는 정치초년생으로 비난받고있다.

배신자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법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극악무도한 생화학전범죄

과거 일본이 침략과 전쟁, 살육을 일삼으면서 감행한 생화학무기개발, 세균전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일제가 감행한 세균전이야말로 인류의 머릿속에 미증유의 재난을 들춰주기 위한 국가적범죄의 하나였으며 세계앞에 파쇼국가, 살인국가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낸 치명적인 악행이었다.

세균전은 국제법적으로 철저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일제는 지난 세기 30년대초부터 대량살육전을 위한 세균전에 광란적으로 달려들었다.

일제가 범죄적인 세균무기연구제작에 달라붙기 시작한것은 9.18사변후 중국본토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이 날로 확대되어가던 1930년대초였다.

일제는 범죄적인 세균전을 벌이기 위하여 1933년 쿠비

리에서 중국 할빈지역에서 세균전특수부대인 731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밖에도 일제침략군안에는 100부대, 516부대, 나미8604부대와 같은 비밀군부대들이 있었다.

값이 높으면서도 살상력이 비할바없이 높은 세균무기와 독가스를 《전승》을 결정짓는 주요무기로 본 일제는 모든 살인부대들에게 생화학무기의 연구와 생산을 발명적으로 벌였으며 그 효과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인체실험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1949년 12월 하바롭스크전범재판관 1956년 7월의 심양특별군사재판에 제기된 고소장에는 1935년부터 1945년 8월사이에 4 000여명의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이 세균 및 화학무기의 인체실험대상이 되어 무참히 살해되었다고 밝혀졌다.

일제는 인체실험대상자들을 《마루마》(통나무)라고 불렀다.

심양특별군사재판에서 구일본군 제731부대에 근무하였던 한 전범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실험에는 두가지 방법이 썼다. 하나는 입에 세균을 주입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하주사로 세균을 주입하는것이였다.

우리 부대가 사용한 세균 가운데는 페스트균, 장티브스균, 디프테리아균이 많았다. 실험을 당한 사람들은 3일 또는 7일만에 죽었는데 그것은 세균의 독성과 성질에서 차이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일제야수들은 인체실험대상들을 거꾸로 매달고 몇시간만에 죽으며 신체의 각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였고 그들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커다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731부대에서 감행된 산 사람에게 대한 독가스실험도 치명적인 만행이였다.

《밀폐실에 인간스가 천천히 퍼져나온다. 천정선공기가 돌면서 밀폐실에 회의를 형성한다. 731부대직원들은 초시계를 두고 촬영기로 실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은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정신없이 몸부림쳤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들의 눈은 커지고 입에서는 거품이 피어 올랐으며 사지에서 경련이 일면서 머리를 떨구었다. 죽음이 다쳐온것이였다.

이처럼 과거 일제가 감행한 생화학전만행은 실로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상상조차할수 없는 가장 악독한 살인행위, 인간의 존엄과 생명체를 무참히 유린, 말살한 살육만행이였다.

본사기자 김혜성

온 나라에 소문난 자력생생모범관의

—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을 찾아서 —



재현력이 강해 대이다

— 리문기 공장장과 나눈 대담 —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지합과 종이제품들이 그 질이 좋은 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공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 사업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얼마전 공장을 찾은 우리는 리문기 공장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각지에서 재자원화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는 속에 공장에서 재자원화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리문기: 우리는 공장이 세워진 때로부터 재자원화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향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그 어떤 경제파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자원화사업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파지 확보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평양시수매일용기관들과의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파지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평성, 원산, 사리원을 비롯한 각 지방들에 나가 파지를 구입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는 파지원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기자: 공장에서 재자원화사업이 잘되어나가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리문기: 공장의 종업원들 누구나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재자원화사업을 실무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들어가 파지 1t에서 얼마만큼의 지합과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알려주면서 재자원화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해 깊이있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모두가 수매원이 되고 유류자재수집가가 되어 재자원화실현을 위해 애쓰니 많은 생산장성의 예비가 나오고 자재가 절약되었다.

자력갱생도 재자원화도 모든지 종업원들의 애국심이 달려 있다. 재자원화자본 애국이라는 관점을 새겨안은 우리 종업원들은 생활과정에서 나오는 파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 재자원화에 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는 재자원화사업에서 과학기술에 큰 힘을 넣고 있다. 파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지를 선별하여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원심선별기, 진동채선별기, 모래채선별기와 같은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제작완성하여 파지속에 들어있는 각종 오물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비 공장의 실정에 맞는 설비들은 수입산 설비에 못지않다.

기자: 듣고보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애국심을 지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문기: 크든작든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기 기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도 나오고 재자원화실현을 위한 경영전략과 생산장성의 묘술도 나온다

본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길만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고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제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재자원화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겠다.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이 오가며 종업원들이 한창 먹이를 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문지현작업반장은 1700여마리의 닭을 기르고 있는 하루에 1000여 알의 닭알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닭사와 오리사, 메추리사, 평사, 돼지복장, 온실, 버섯재배장을 비롯하여 튼튼히 꾸러진 공장의 후방토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게 했다.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갖추어놓은 후방기지에서 생산한 많은 양의 고기와 알, 남새와 과일 등을 정상적으로 종업원들에게 공급해주니 누구나 좋아한다. 공장 일군의 자랑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닭공장을 방불케 하는 닭사였다.



일터에 넘치는

조화롭게 들어앉은 생산건물들이며 파아란 잔디밭,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와 같은 과일나무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웃는 아름다운 꽃들. 그런가 하면 건물벽에 특색있게 지은 알록달록한 비둘기장이며 기묘묘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인공절벽, 실물을 방불케 하는 학과 소나무조각... 이곳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을 돌아보노라니 공원속의 공장, 잘 꾸러진 휴양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공장구내의 여러곳에 꾸러진 정각모양의 휴식터들에서는 종업원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공장안을 공전과 같이,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훌륭히 변모시키고 높은 생산

준비하게 늘어선 닭장들 사이를 오가며 종업원들이 한창 먹이를 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문지현작업반장은 1700여마리의 닭을 기르고 있는 하루에 1000여 알의 닭알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공부화기로 필요한 닭종자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었다. 많은 닭들을 기르는 조건에서 먹이보장이 험치 않았다는 우리들에게 고광속작업원은 《비알곡먹이비율을 30% 이상 보장하는 것과 함께 번식속도가 빠르고 단백질함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장봉익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일에 죽주는 구호가 아니며 연혁소개실에 써 붙이는 간판이 아니라고, 김정일에 죽주는 이 땅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품어안고 자기의 구슬땀과 지성을 다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느라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구내에 잔디와 꽃과 나무들을 심어가

이 높은 생물먹이인 물물등에의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원가로 닭, 오리, 메추리, 평의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라고 있는데 불과 가을에 도마도, 오이, 고추를, 겨울에는 시금치, 속갯 등을 심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남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온실작업반 리명숙작업반장의 말이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심어가꾼 갖가지 남새들로 종업원들의

공장에



꾸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로동자들 누구나 공장의 생산환경, 생활환경이 잘 꾸러져 일터에 정이 푹 들었다고, 그리고 공장일군들이 종업원들의 생활

을 따듯이 돌봐주니 일하는 것이 얼마나 흥겨운지 모르겠다며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웠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꽃피워가는 자기들의 일터에 대

어느것 하나 무시하지 않을 수 없고 쉽게 스쳐지날 수 없는 것들을 지나 건물옥상에 오르면 이번에는 푸르싱싱한 남새들이 키돋움하며 자라는 온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금 온실에서 배추와 무



을 따듯이 돌봐주니 일하는 것이 얼마나 흥겨운지 모르겠다며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웠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꽃피워가는 자기들의 일터에 대

만 우리 공장살림살이는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자력갱생의 생활력이 속속들이 파시되고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자체의 힘으로 단위발전의 길을 개척해가는 긍지 높은 추억담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는 취재절이었다. 자체의 힘으로 종업원들에게 푸짐한 식탁을 마련해주기 위해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사는 공장, 흥하는 공장의 더 좋아질 래일을 호호하게 그려보았다.》

잘사는 공장, 흥하는 공장

를 지나 돼지종축장에 이르러 종축돼지들이 한가로이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공장에서는 우량종축 돼지들을 확보해놓고 새끼 돼지들을 받아 많은 비육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고기량이 적지 않다

우가 자라고 있는데 불과 가을에 도마도, 오이, 고추를, 겨울에는 시금치, 속갯 등을 심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남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온실작업반 리명숙작업반장의 말이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심어가꾼 갖가지 남새들로 종업원들의

것, 털검정버섯, 팽나무버섯 등이 자라고 있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 했다. 우리와 만난 리은주종업원은 버섯재배장을 꾸리고 버섯을 재배하던 나날을 더듬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고 부족함이 적지 않았지

본사기자 류현철

《다 고마운 제도의 덕이지요》

고 한다. 공화국에는 년로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집진 및 건강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특히 90살이상의 장수자들을 특별히 등록하고 돌봐주고 있다.

의사들의 관심속에 년로자들은 세부적인 검진과 각종 보약제들을 정상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공용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할머니는 정권기관 일군들과 담당자들, 아빠주머니들의 세심한 관심속에 아직도 일손을 놓지 않고 집안일을 하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해방전 빈동의 가정에서 태어나 피눈물속에 살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참된 삶의 보람을 안겨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할머니는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왔다. 신장렬할머니는 《자식들을 잘 키

우려던 나의 꿈은 실현되었다. 내가 장수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한 것은 다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덕이지요.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이렇듯 훌륭히 내세우며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고 말했다.

그의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특히 할머니의 말자들은 만수대창작사에서 수십년간 조각가로 활약한 공훈예술가이다. 창작활동기간에 만수대대기념비, 삼지연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 보천보전투승리기념비, 대성산혁명렬사 등을 나라의 곳곳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하게 일떠세우는데서 공로를 세웠다. 딸 아들 김익선은 나와 동

생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나의 재능은 꽃피고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들에게 일을 잘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인민 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번재 생일을 맞이한 신장렬할머니에게 온정 어린 생일상을 보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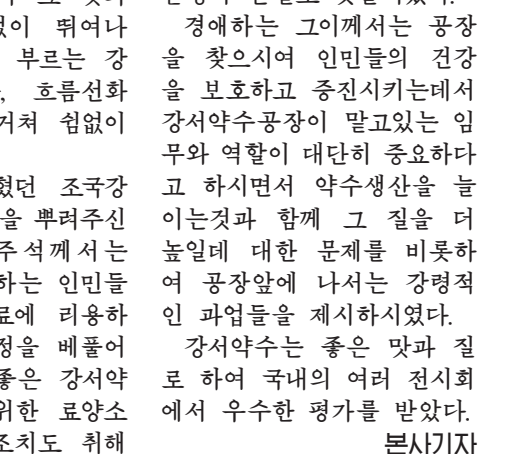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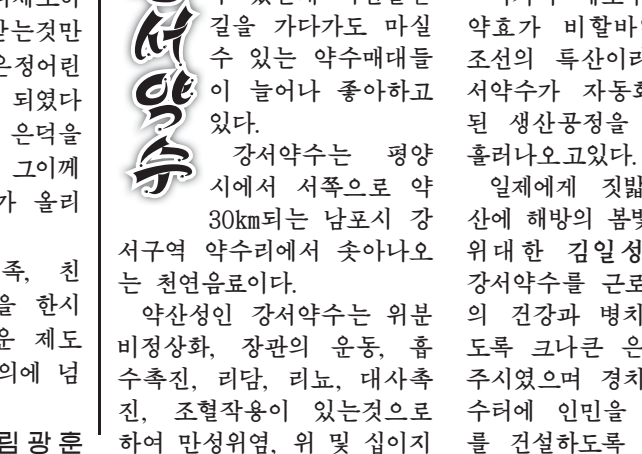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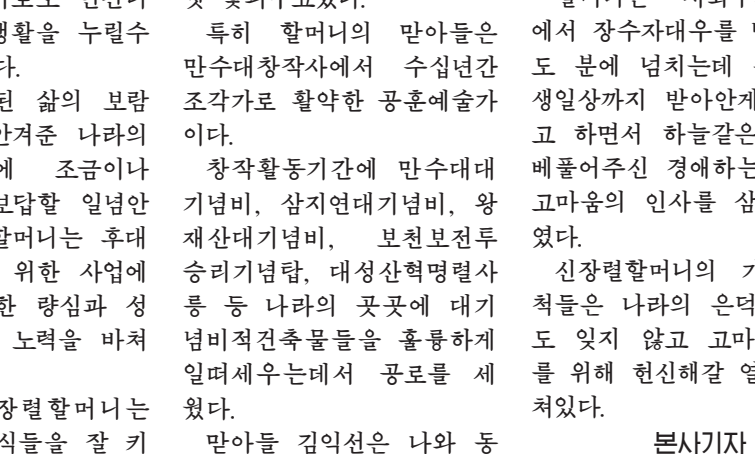
할머니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장수자대우를 받는 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온정 어린 생일상까지 받아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신장렬할머니의 가족, 친척들은 나라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마운 제도를 위해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평양의 거리들에 증설된 강서약수매대 봉사자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의 봉화거리 강서약수매대의 김일숙 판매원은 요즘은 다른 유료매대들보다 약수매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평양시안의 백화점들에도 강서약수매대가 있고 식료품상점들에서도 약수를 살 수 있는데 시민들은 길을 가다가도 마실 수 있는 약수매대들이 늘어나 좋아하고 있다. 강서약수는 평양시에서 서쪽으로 약 30km되는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에서 솟아나는 천연염류이다. 약산성인 강서약수는 위분 비정산화, 장관의 운동, 흡수촉진, 리담, 리노, 대사촉진, 조절작용이 있는 것으로 하여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

장개양, 위수술후유증, 만성 소화장애, 동맥경화증, 비만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강서약수는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이 인정된 보기 드문 천연탄산광천수인 것으로 하여 1982년에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56호로 등록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 명동명승지와 품질인증서, 세계적소유권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명명등록증을 받았다.

강서약수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뿐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은정의 손길도 깃들여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약수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약수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더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강서약수는 좋은 맛과 질로 하여 국내외의 여러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평양의 자랑 련광정

평양의 풍치 좋은 대동강기슭에는 예로부터 주변경치가 하도 좋아 평양의 자랑으로, 판서8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련광정이 있다.

그림과도 같은 련광정에 이르러다. 《련광정은 대동강기슭으로 속 내린 덕바위를 지반으로 하여 한채, 옆에 있는 절벽에 딱 붙어 한채 이렇게 크기와 높이가 다른 합

각지분을 서로 직각으로 맞물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건물은 련결부위를 재치있게 해결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배치하였습니다.》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그곳에서 리일심연구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려시기에 김황원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

우리는 련광정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경치가 마치 한쪽의 산수화 같아서 예로부터 《제일루대》, 《만화루》 등으로 불려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옛시와 현판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앞날의 인재들이 자란다

공화국의 창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알뜰히 돌보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로보트 교육의 성과정보장을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유능한 고인원의 강의를 조직하여 교양원들이 로보트에 대

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8점의 교육용 로보트를 자체로 제작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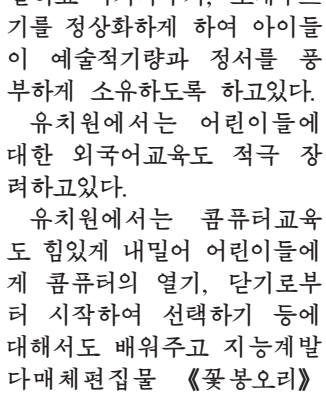
오늘 창광유치원의 교육수준은 더욱 개선되고 교육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학부형들과 교육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기초를 닦아주기 위해 모든 반에서 청음 및 시창교육을 잘하고 악기다루기, 노래부르기 등을 정상화하게 하여 아이들이 예술적기량과 정서를 풍부하게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외국어교육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컴퓨터교육도 힘있게 내밀어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의 열기, 단기로부터 시작하여 선택하기 등에 대해서도 배워주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료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성을 내면 건강에 해롭다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 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을 내면 혈액이 오르고 혈관이 심하게 수축되어 얼굴이 빨개지거나 심한 경우 이그리지며 로인들속에서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랑하노라 (2)

김정인, 대학시절의 그는 너무나도 수수하고 평범한 청년이었다.

《축하합니다, 유정동무!》 나는 그만 약이 짝 올라서 얼굴이 빨개져 달아올랐다.

그를 바라볼 때 나는 후줄근해보이는 그의 옷차림과 흥분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지켜보며 한쪽구석에 조용히 서있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부채

부채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가시는데 부채를 리용하고 있다.

부채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가시는데 부채를 리용하고 있다.

부채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가시는데 부채를 리용하고 있다.

남편의 안해 두둔

남편: 《그 때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

남편: 《그 때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

남편: 《그 때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

평양의 련광정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고려약음식 료법

이 료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 료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 료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성을 내면 건강에 해롭다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 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 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 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부채

부채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가시는데 부채를 리용하고 있다.

부채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가시는데 부채를 리용하고 있다.

부채는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가시는데 부채를 리용하고 있다.

남편의 안해 두둔

남편: 《그 때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

남편: 《그 때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

남편: 《그 때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

평양의 련광정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고려약음식 료법

이 료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 료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 료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성을 내면 건강에 해롭다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 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 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 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